

다양성 존중 정책

제일기획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서, 조직 내 다양성 제고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
이에 따라 구성원 개개인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어울려 근무하는 열린 문화를 목표로 아래의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.

1 제일기획은 직무와 역량 중심 채용을 통해 사회·경제적 배경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평가에 개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 조직내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합니다.

2 제일기획은 장애를 가진 임직원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며, *장애인 의무고용률(3.1%) 준수를 목표로,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합니다.

*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 '24년 민간기업 기준

3 제일기획 구성원은 성별/연령/혼인 관계/종교/신념/출신지역 등을 사유로 평가, 선발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.

4 제일기획 구성원은 모두 “Pro”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서로를 존중하며,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합니다.

5 제일기획은 다양한 세대와 구성원을 아우르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조직 내외 다양성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에 기여합니다.

6 제일기획은 광고 제작과정 및 제작물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합니다.

※ 별첨: 광고제작 환경에서의 다양성 존중 가이드라인

광고 제작 환경에서의 다양성 존중 가이드라인

1 광고의 모델/진행자/성우 캐스팅 관련

- 제일기획은 광고의 모델/진행자/성우 등을 캐스팅함에 있어 다음의 사유(이하, “부당 차별 사유”라 함)로 차별하지 않습니다.

- ▶ 성별
- ▶ 연령
- ▶ 장애 유무
- ▶ 성 전환 여부
- ▶ 혼인 관계
(기혼/미혼/비혼 등)
- ▶ 임신 여부
- ▶ 인종
- ▶ 출신국가 또는 출신지역
- ▶ 종교 또는 신념
- ▶ 직업
- ▶ 사회 경제적 배경

※ “부당 차별 사유”는 위에 열거된 것에 제한되지 아니하며, 이 밖에 개인의 능력을 제외한 모든 부당한 차별 사유를 포함함

2 광고의 줄거리/주제/네러티브 관련

- 제일기획은 광고의 줄거리/주제/네러티브를 선정/작성함에 있어, 위와 같은 “부당 차별 사유”에 의한 차별/편견을 조장하거나, 암시하거나, 사회의 부정적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, 광고를 통해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.

- ▶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 금지
- ▶ 특정 인종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 금지
- ▶ 백인 인종으로 묘사된 캐릭터에 소수 인종의 모델 캐스팅
- ▶ 원래 비장애인으로 묘사된 캐릭터에 장애를 지닌 모델 캐스팅 등

3 광고 촬영/제작 스태프 구성 관련

- 제일기획은 광고 촬영/제작 스태프를 구성함에 있어, 어떠한 경우에도 “부당 차별 사유”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다양한 성/연령/장애인/성전환인/기혼인/미혼인/비혼인/임신부/인종/국가/지역/종교인/직업인/사회경제적 배경인 등이 스태프로 참여하여 광고업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.